

없는 속명으로 낙농가는 받아 들이
야 할 것이다.

시유와 유제품의 소비는 둔화되
고 원유는 증산되는 이런 상황속
에서 낙농업과 낙농가 모두의 미
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게 담당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할 때이다.

과거 우유과동을 겪을 때마다
보아왔듯이 그 최종적인 피해는
낙농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증산으로 인한 피해도 결국은
낙농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낙농업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
량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비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우유가
낙농가와 고락을 같이하면서
농가소득의 중요한 밑천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는 다분히 감상적인 기분만
으로 오늘의 불황을 타개할
순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낙농가 스스로가 나서
서 우유의 중요성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일심단결
해서 한 농가도 낙오자가 없
이 자조금 조성에 참여 하
여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낙농가는
힘이 약한 까닭에 이리저리
채이면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실의와
좌절에 빠져버리면 영원히
스스로를 늑속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자조금 사업은
낙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권
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낙농업의 성패가 달려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특히 도시자본으로부터 낙
농가를 보호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
해서는 한 사람도 낙오자
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낙오자가 본인
은 물론 낙농가 전체의
피해를 줄 것이다.

현재의 어려운 불황속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
기 위해서는 결집된 우리
낙농가의 역량만이 경쟁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낙농업을 지키는 데
는 우리 낙농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
도 낙농가를 위해 희생하
고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때도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
란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만 있
다면 오늘의 불황을 헤쳐
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
을 것이다.

낙농가 여러분 우리 낙
농가가 뭉치지 않으면 모
든게 무너지고 만다. 이
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
요한 것은 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보 다 많은 애
정과 관심을 기울여 자
조금으로 인한 정책대
안을 발굴하고 낙농현
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
서서 현재의 위기를 극
복하는데 낙농인 모두
는 이에 참여하고 각
계각층의 국민들에게
권유하며 우유마시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
짐하고자 한다. ☺

자조금은 우리가 이룩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최원선

파스티르 자조금 추진위원

개인적인 사업발달과정에 스
스로 노력하여 성공했다는 모
델을 관

찰해 보면 개략적으로 경제
적 지위 향상과 덕망의 수
준 향상 즉 대내

외적 인격 향상을 말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면 낙농가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대내외적 인격향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지면 관계로 경제적 지위 향상 한 분야를 자조금 조성에 따른 논제로 그 여건과 필요성을 좁은 식견에 표현으로 기술한점을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돈”하면 누구이든 침해한 이권에 관련하여 안정적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모두에게 비축을 권장한다.

그런데 그 비축한 돈이 효과적일수 있는데는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다행히 낙농육우협회에서 주관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집행부가 구성된다 하니 기대가 클수밖에 없지않은가.

자조금 조성을 많은 낙농가들의 동의가 있다하고 낙농가 모두는 잘 아시는 바 정부가 지원하면서 정책방안으로 자조금 조성이 현실방안으로 선택 되었다 하니 성공될수 있는 정보마인드가 모든 낙농가에게 전달되어 깊은 이해를 촉구할수 있기를 바라고 자금을 운영하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될수있는 추진위원회의 정관 또는 규정이 제정되어 정관에 의한 경영체제와 그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차질없는 수행이 낙농가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을 때 그 누구도 이를 거절하지는 않을것이라 생각된다.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직능과 이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것은 모

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동원과 직능은 우유수급을 촉진하는 것이든 전국민의 우유를 주된 음식으로 활용하게 하든 그 조직이 추구하고 보여주는 영향력과 분야별 다양한 능력이 결합되어져야 하는데 그결합은 낙농가들의 자조금 출현이 아닐까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낙농산업의 전문화를 기할수 있다 생각한다.

안정적 자금출현은 전문가를 부를수 있고 고도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산업의 지식과 전략이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사항은 생업기반이 되고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대내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원 확보가 있어야 하기에 기금조성의 가치를 내건 낙농육우협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코 해내지 않으면 누구인들 다시 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7,8월에 홍보하고 9월부터 자금 수수에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기대는 낙농산업기반 구축과 발전에 적극 활동하며 또 연구하여 경제적인 기반을 가진 낙농인의 조직이 낙농가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낙농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서라도 처음이며 전국적인 낙농인의 조직으로 낙농 산업의 특성상(기본적인 사업과 지식기반인 것) 찬성과 반대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는 낙농인 모두의 의무로 깨달아

야 되지 않을까 하여 이에 모두 참여를 권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록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자조금은 밀천(기금)과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자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조직이 갖는 자산이며 사업은 내용과 관련하여 이익을 목표포함이며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함은 조직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조직(낙농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근원은 밀천(기금)이고 이에 경영적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조금조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들이 자조금을 조성 하는데는 모두 참여 하겠는데 그 운영과 사업방향에 대해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정관을 제정하게하고 정관에 의해 총회를 구성하고 그 총회에서 정관에의한 사업계획과 자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해 준비토록함이며 그사업계획에 의해 총회(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한 집행부가 사업추진 및 집행이 용이하게 해준다면 금상첨화일것 같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서 몇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실행에 옮길수 있는 계획 및 실행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인력 및 조직의 육성 또는 확산이 요청되는 낙농육우협회의 과제인 것 같다. 이로서 낙농인의 현실극복의 최선의 수단이되고 우리 모두의 바램이 다 이루어 지기를 바라며 제언드린다. ☺

낙농자조금은 낙농가 스스로의 자구 노력입니다.